



지난 20일 '희경루'에서 열린 한중우호친선 차담회에 참석한 한중경제인친선협회 임원진과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외교관, 내빈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희경루서 차 마시며 한·중 민간 우의 다졌다

광주의 새로운 역사 문화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희경루에서 중국 외교관과 광주 경제인들이 차(茶)모임을 갖고 우의와 친선을 도모하는 행사가 열려 관심이 모였다.

한중경제인친선협회가 주최하고 광주매일신문과 문화통, DS그룹이 후원한 '희경루 유두차회'가 지난 20일 오후 광주의 대표적인 도심 누각인 희경루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우리 민족의 세시풍속인 음력 6월15일 유두날을 맞아 열린 '희경루 유두차회'에는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의 구징치(顧景奇) 총영사와 주척화 부총영사, 자이루 영사, 황황 영사 등 10여명의 중국 외교관이 참석했으며 한중경제인친선협회에서는 박상철 이사장(호남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문병재 회장과 회원 및 노회용 광주

한중경제인친선협회 주최·본보 등 후원 '희경루 유두차회' 성료 구징치 주광주총영사 등 40여명 참석...교류 활성화 의견 나뉘

문화재단 대표,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 등 각계 인사 4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민아 남부대 차문화학부 교수팀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다식과 시원한 오미자차를 함께 나누며 희경루가 가진 역사적 가치와 향후 활용 방안은 물론, 한중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했다.

이와 함께 제25회 임방울국악제 명장부 대통령상 수상자인 김연옥 명창이 춘향가 중 사랑가로 행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국가무형

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이수자인 이연주의 가야금병창과 제18회 빛고을국악대제전 일반부 최우수상 수상자인 최성욱의 해금 연주가 펼쳐져 예술공연의 새로운 재미도 선사했다.

구징치 총영사는 "외교관으로서 항상 양국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천년세월의 고성, 수백년 세월의 누각, 경사와 희락이 가득한 희경루여/ 밝은 달빛 아래 다향과 가락이 어우러져, 오랜 벗과 상봉하는 기쁜 자리에서 고금을 논하네/ 친선회에서

친선을 도모하니, 중한문화가 한 뿌리를 내리네 / 수 천년 운명을 함께 해 온 우리들이여, 손에 손 잡고 나란히 대동세상으로 나아가자'라는 시를 낭독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박상철 한중경제인친선협회 이사장은 "국제 상황과 맞물려 대중관계에도 여러 변수가 상존하지만 경제인과 문화인을 주축으로 한 민간교류는 멈춰서는 안된다"며 "한중경제인친선협회가 그 역할을 잘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재 회장은 "그동안 주광주중국총영사관과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 다양한 친선 교류행사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유두절을 맞아 '모두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의미를 지닌 '희경루'에서 전통공연예술을 차와 함께 즐겨 더 뜻깊은 행사였다"고 전했다. /주성학 기자



장흥경찰, 수사파트너십 포럼 정기회의

장흥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2층 장원마루에서 군민 안전을 위한 참여지인 일환으로 수사파트너십 포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는 경찰, 포럼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더 관심있게·더 참여하고·더 소통하자'는 슬로건 아래 수사정책 홍보, 암수범죄 등 발굴, 피해자 보호 연계 요청, 범죄 다발지역 첩보 제공 등 민생 안전을 위한 공동체 치안 파트너십 체제를 다지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앞서 장흥경찰은 지난 4월25일 수사 치안 협의체 역할 수행을 위해 지역 실정에 밝고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되는 지역민 10명을 회원으로 위촉, '수사 파트너십 포럼'을 발족했다.

신형희 장흥경찰서장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지역 내 특수관계나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신고하지 않는 등 보호받지 못하는 암수범죄 척결을 위해 포럼 회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원을 방지해 군민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신고 시 신속하게 수사해 적절하는 등 치안 불안 요소 해소와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장흥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홍=노혜룡 기자



영광경찰, 주요 피서지 불법카메라 점검

영광경찰서는 "최근 지역 해수욕장(가마미, 백마위, 송이도)과 물놀이장(우산공원, 물무산 행복숲) 등 여름철 주요 피서지 7개소에 대한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광경찰서와 영광 여성일상지킴이 단원이 함께 했으며,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종류와 예방요령 등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박삼서 영광경찰서장은 "해수욕장과 물놀이장 등 피서지 내 다중이용시설을 모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건 발생 시에는 가해자에 대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담양농협, 마을회관 복달임 행사 지원

담양농협은 "최근 초복을 맞아 담양읍, 용면, 월산면 90여개 마을회관 복달임 행사에 생닭 22마리와 수박 150개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병진 담양농협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달임 행사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농협이 조합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부음

▲정동호씨 별세, 재형(LG전자 동광주서비스센터 근무)-혜영-혜선-혜정-혜란씨 부친상, 김지숙씨 시부상, 김승민·한덕연·송진규(자유라이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최승인씨 장인상=발인 22일(월) 오전 7시 20분 광주 북구 그린장례문화원 202호실(2층), 010-7771-4806.



광주 남구 5개 사찰, 구청 공무원들에 팔빙수 선물

광주 남구 월산동 소원정사(주지도계스님) 등 남구지역 사찰들과 신도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대민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남구청 공무원들에게 시원한 팔빙수를 직접 만들어 선물했다.

21일 광주 남구청에 따르면 도계스님(소원정사), 상진스님(광덕사), 현오스님(봉덕사), 지선스님(무량선원), 상운스님(흥통사)과 불자 봉사자들이 지난 19일 남구청 5층 보건교육실에서 팔빙수 800여 그릇을 만들어 공무원 전원에게 시원한 한나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스님들로부터 팔빙수를 선물 받은 김병내 남구청장은 "우리 공직자들은 당연히 해야 할 대민업무를 할 뿐인데 이렇게 노고를 이해하고 또 격려해 주시니 더욱 힘이 난다"며 고마워했다.

행사를 주관한 도계스님은 "남구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찰은 늘 지역민에게 고마움을 갖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공무원들의 수고를 잘 알기에 불교계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팔빙수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발족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는 "최근 목포시청 소년문화센터와 함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 Motion)은 아동이 일상 속 아동권리 침해상황을 스스로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활동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목포시내 아동권리 침해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활동을 펼친다. 이를

토대로 목포시에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도 제안할 예정이다.

임광목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장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으로서 아동, 청소년이 아동권리 주체임을 인식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및 공동체 내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에 제언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수진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장은 "지역사회 아동들이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광산구,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단' 본격 활동

광주 광산구는 "최근 광산구청소년수련관에서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단은 광산구민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100일 동안 쓰레기 줄이기 환경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광주시 자원순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방안,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이옥근 기자



여수시의회, 여서동 아름다운가게에 화분 기부

여수시의회, 여서동 아름다운가게에 화분 기부

여수시의회는 21일 "백인숙 의장과 문갑태 부의장이 지난 19일 여서동 아름다운가게에 화분 50여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가게에 기부된 화분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과 지역공동체를 지원하고 손길이 닿지 않은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게 된다.

백인숙 의장은 "아름다운가게는 소외된 약자들을 돕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던 곳"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지역을 위해 봉사하며 살



나주 문평면 지사협,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

나주 문평면 지사협,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

나주시 문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깔끔 맑끔 클린 홈' 봉사를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가구는 지적장애로 인해 각종 생활용품이 집안 곳곳에 널려있고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냉장고에 방치돼있어 도움이 시급했다.

봉사 참여자들은 물건 정리 정돈, 생활·음식물 쓰레기 수거 등에 구슬땀을 흘리며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했다.

김일순 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주민 봉사자들이 앞장서 참여해주신 덕분에 이웃에게 쾌적한 보금자리를 선물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데 함께 노력해가자"고 말했다.

봉현군 문평면장은 "지사협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 일손을 보태준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지역 소외계층 발굴을 통해 이웃과 함께 온정을 나누는 일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나주=정종환 기자